

2026년도 1/4분기

여수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YEOSU

TH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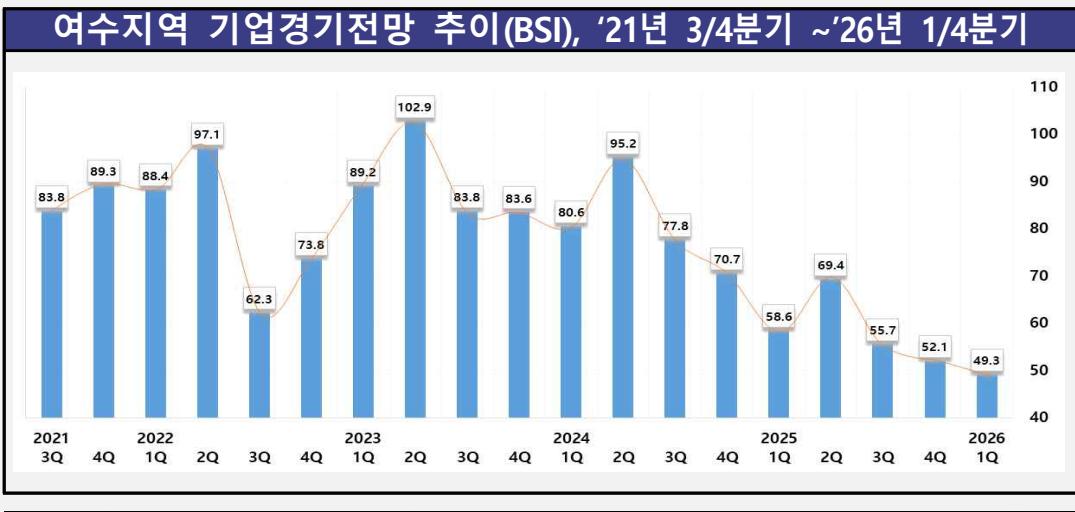
여수상공회의소

■ 여수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요약

전망 지수

- (종합) 2026년 1/4분기 여수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BSI, n=73)는 **49.3**으로 전 분기 (52.1) 대비 2.8p 하락하여 낮은 수준이 이어졌음.
※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호전(상승, 증가)'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악화(하락, 감소)'로 응답한 업체 수를 상회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 반대의 상황을 나타냄.
-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연관** 업종(n= 39개)은 '56.4'였고, **일반제조업**(n= 34)은 '41.2'로 조사되었음.

2026년 1/4분기 기업경기 전망



구분	2021 3Q	2021 4Q	2022 1Q	2022 2Q	2022 3Q	2022 4Q	2023 1Q	2023 2Q	2023 3Q	2023 4Q	2024 1Q	2024 2Q	2024 3Q	2024 4Q	2025 1Q	2025 2Q	2025 3Q	2025 4Q	2026 1Q
총합	83.8	89.3	88.4	97.1	62.3	73.8	89.2	102.9	83.8	83.6	80.6	95.2	77.8	70.7	58.6	69.4	55.7	52.1	49.3
석유화학연관업종	84.6	100	94.7	97.2	60.5	70.6	88.6	102.8	75.7	86.1	75.8	88.9	73.8	72.5	67.5	73.2	46.2	52.4	56.4
일반업종	82.8	75	80.6	96.9	64.5	77.8	90	102.9	93.5	80.6	86.2	103.8	82.1	68.6	46.7	64.5	67.7	51.7	41.2

- (**석유화학 연관업종**) 정부가 제시한 구조개편안 제출기한에 맞춰 NCC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구안 제출이 완료되면서,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돼 석유화학 연관 업종의 BSI는 전 분기 대비 소폭 개선됐음. 다만 중국·중동발 증설 물량 유입에 따른 국제 가격 경쟁 심화와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이 이어지면서, 재편 논의가 단기간에 스프레드 개선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여건이 지속돼 개선 폭은 **하락세가 둔화된 수준에 그침**.
- (**일반 업종**) 산단 경기둔화가 길어지면서 서비스·유통·관광·수산업 등에서 매출과 방문 수요가 둔화되고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불경기가 이어진 점이 전망을 낮춘 요인으로 해석됨.
- 종합하면, 석유화학은 재편·감산 논의가 일부 반영되며 소폭 상승했으나 공급 압박과 수요 부진 등 여건이 남아 개선 폭은 제한적이었고, 일반업종은 지역 수요둔화가 이어지며 큰 폭 하락해 종합지수도 전 분기 대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음.

기타 질의응답 ※ 세부 항목 조사 결과는 다음 장부터 확인 가능

- 2026년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실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은?

관세 등 통상 대응 강화	소비활성화 정책	AI 침단산업 육성 지원책	국내투자 촉진 정책	환율 안정화 정책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위기산업 지원 정책
27	12	9	32	16	1	35
20.5%	9.1%	6.8%	24.2%	12.1%	0.8%	26.5%

1. 조사의 개요

▣ 목적

- 여수지역 제조업체의 다음 분기 경기전망(체감조사)을 조사·분석하여 역내 기업의 경영활동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동시에 시·도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경기 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조사 기간 및 조사 방법

- '25년 4/4분기(10, 11, 12월) : 실적 기간
- '26년 1/4분기(1, 2, 3월) : 전망 기간
- 조사 기간 : '25.12.4. ~ '25.12.19. (휴일 제외 12일)
- 조사 방법 : 설문지 조사 방식(리커트 척도)

▣ 조사 대상

- 여수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종업원 15인 이상의 제조업체 186개 사
- 응답 개수 : 73개(설문지 회수율 : 39.2%)

▣ 조사 내용

- 전반적인 체감경기(경기실적 및 전망)
- 경기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과 대책 상황 등

▣ 집계·분석

- 회수된 조사표를 항목별로 집계·통계(리커트 척도)·분석·보고

▣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작성 방법

- 경기조사 및 항목별 평가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기간의 실적과 예측을 각각 전 분기 및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호전(상승, 증가), 악화(하락, 감소)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하여 조사

$$\text{기업경기전망지수(BCI)} = \frac{\text{증}(+) 응답업체 수} {\text{총 유효 응답업체 수}} - \frac{\text{감}(-) 응답업체 수} {\text{총 유효 응답업체 수}} \times 100 + 100$$

※ BCI = Business Survey Index ($0 \leq BCI \leq 200$)

- 따라서 BC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상승, 증가)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하락, 감소)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때는 그 반대를 뜻함.

2. 2026년 1분기 기업경기 전망

종합 전망

- 여수지역에 소재한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지 73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39.2%였으며, 기업경기전망지수(BCI)는 49.3으로 조사되었음.
- 이 가운데 석유화학 연관 업종(응답 39개)의 경기전망지수는 52.4로 나타났음.

항목별 기업경기전망지수

▶ 종합 (N=73)

구분 항목	'25년 4Q 실적 (전 분기 대비)	'26년 1Q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경기	65.8	49.3
매출액	75.3	63.0
영업이익	61.6	53.4
설비투자	71.2	60.3
자금사정	61.6	49.3

▶ 석유화학연관 업종(N=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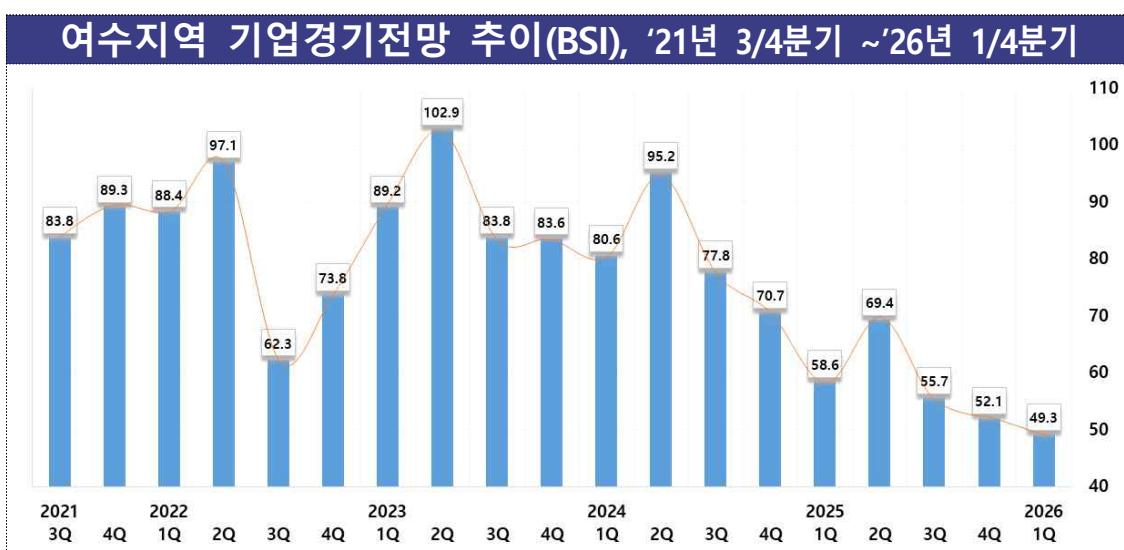
구분 항목	'25년 4Q 실적 (전 분기 대비)	'26년 1Q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경기	66.7	56.4
매출액	69.2	66.7
영업이익	56.4	59.0
설비투자	74.4	69.2
자금사정	74.4	61.5

▣ 일반 업종(N=34)

구분 항목	'25년 4Q 실적 (전 분기 대비)	'26년 1Q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경기	64.7	41.2
매출액	82.4	58.8
영업이익	67.6	47.1
설비투자	67.6	50.0
자금사정	47.1	35.3

▣ 조사 결과 분석

- '26년 1/4분기 여수지역 경기전망지수(BSI, n=73)는 49.3으로 조사되었으며, 설문 응답 수는 73개, 회수율은 39.2%임.
- 경기전망지수(BSI)는 전 분기 대비 다음 분기의 기업경기 체감도를 나타내며, 기준값인 100은 체감도가 같음을 의미함. 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호전(상승·증가), 100을 하회하면 악화(하락·감소)로 평가됨.



- 2026년 1/4분기 여수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49.3으로, 지난 분기 52.1 대비 2.8p 하락했음. 기준치(100)를 크게 밑도는 흐름이 이어졌고, BSI 추이 그래프 기준으로도 최근 구간 중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음.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보고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종합	83.8	89.3	88.4	97.1	62.3	73.8	89.2	102.9	83.8	83.6	80.6	95.2	77.8	70.7	58.6	69.4	55.7	52.1	49.3
석유화학연관업종	84.6	100	94.7	97.2	60.5	70.6	88.6	102.8	75.7	86.1	75.8	88.9	73.8	72.5	67.5	73.2	46.2	52.4	56.4
일반업종	82.8	75	80.6	96.9	64.5	77.8	90	102.9	93.5	80.6	86.2	103.8	82.1	68.6	46.7	64.5	67.7	51.7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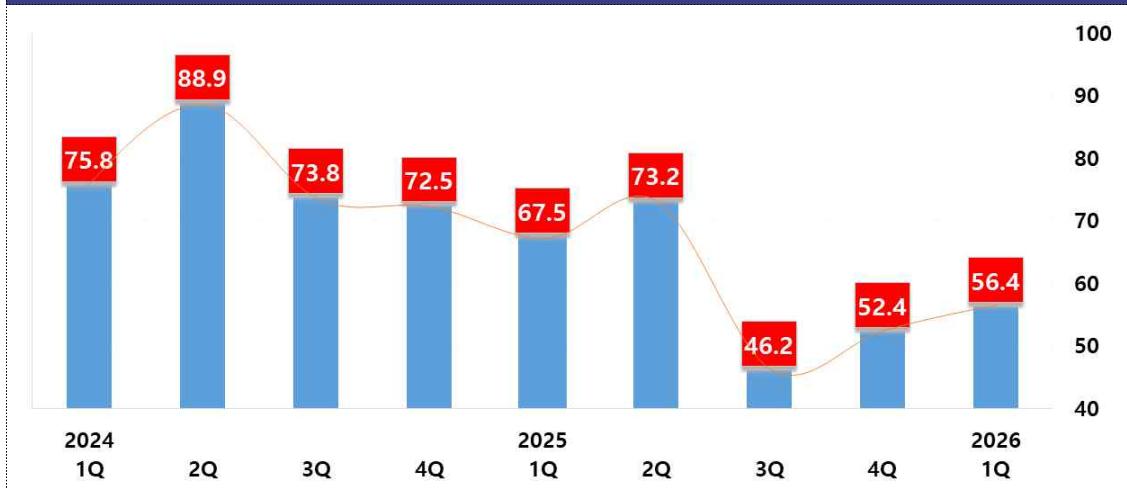
※ 종합 BSI: 52.1(25년 4/4분기) → 49.3(26년 1/4분기), 2.8 하락

※ 석유화학 연관 업종 BSI : 52.4(25년 4/4분기) → 56.4(26년 1/4분기), 4.0 상승

※ 일반제조 업종 BSI : 51.7(25년 4/4분기) → 41.2(26년 1/4분기), 10.5 하락

-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연관 업종이 전 분기 대비 4.0 포인트 상승한 56.4, 일반제조업은 10.5 포인트 하락한 41.2로 나타났으며, 두 업종 모두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며 ‘부정적’인 결과를 보임.

석유화학연관 업종 기업경기전망 추이(BSI), '24년 1/4분기 ~'26년 1/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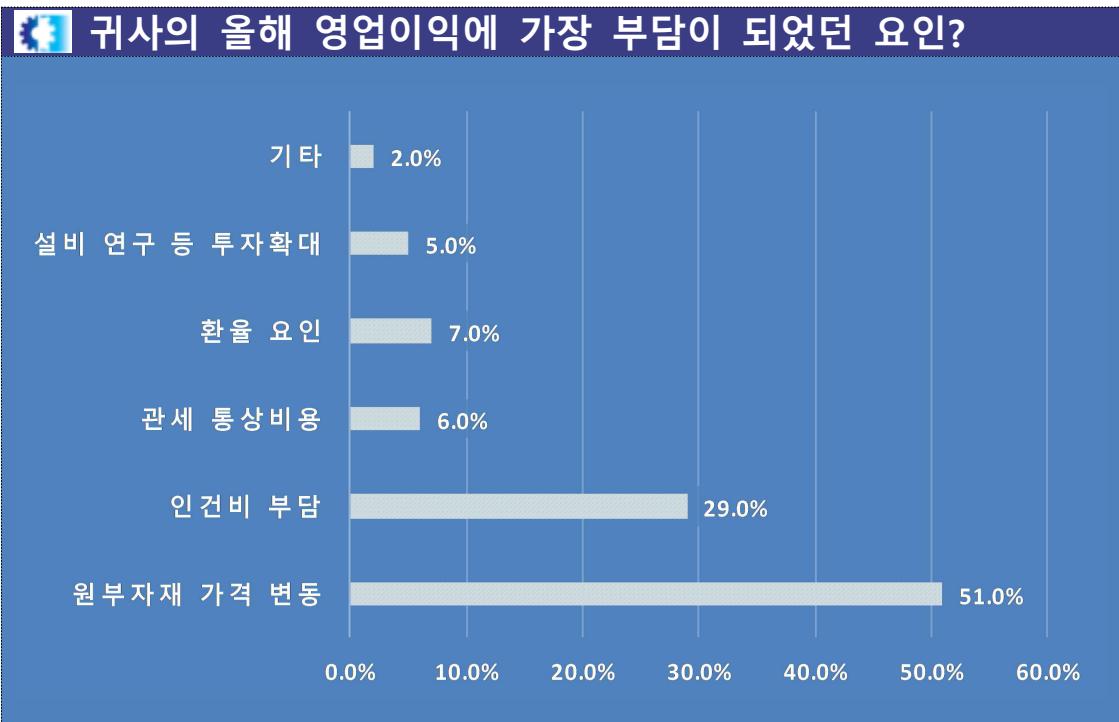


- 석유화학연관 업종 BSI는 52.4→56.4로 4.0p 상승했으나, 기준치(100) 미만의 부정 구간에 머물러 회복이라기보다 ‘하락세가 둔화된 수준’에 그침.
- 석유화학 부문의 반등 배경으로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프레임이 논의 단계에서 회사별 재편(안) 제출·검토 국면으로 들어간 점이 심리상 완충으로 작용한 영향이 큼.
- 2025년 8월 정부가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향을 내놓으며 NCC 생산능력 최대 25% 감축(연 2.7~3.7Mt 수준)을 제시했음. 이후 재편안 마련 과정에서는 자구안 마련이 지연된다는 보도와 지역의 우려가 이어졌으나, 제출 기한(2025.12.19.)이 임박하면서 여수·울산·대산의 주요 NCC 사업장들이 재편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흐름이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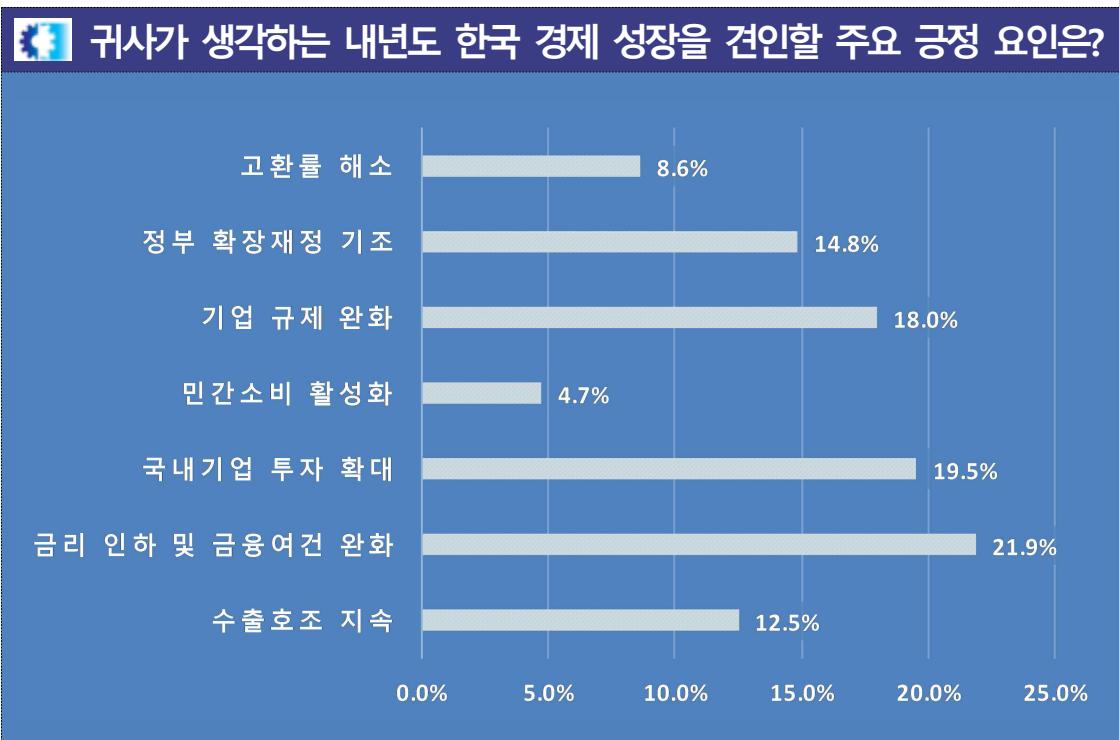
낫음(국내 NCC사 제출 완료)

- 다만 실물 여건은 여전히 제약적임. 중국·중동발 공급 확대와 수출 압박은 진행형이며, 글로벌 수요가 강하게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내 재편이 곧바로 스프레드 개선으로 연결되기 어려움. 중국의 과잉이 수출로 전이되며 압박이 커진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음.
- 반면 일반업종은 41.2로 10.5p 하락했음. 이는 석유화학이 '재편 기대 감'으로 하락 폭을 일부 줄이는 사이, 산단 경기 둔화가 길어지면서 단지 밖 서비스·유통·관광·수산업 등 일부 분야에서 매출·방문 수요 둔화와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불경기 지속이 먼저 나타나는 흐름이 이어졌고, 이 요인이 일반업종 전망을 더 낮춘 것으로 해석됨.
- 2025년 4/4분기 보고서에서도 '수주·하도급 감소→고용 불안→가계 여건 악화→소비 위축'의 연쇄가 이미 제시됐는데, 2026년 1/4분기에 는 이 연쇄가 더 빠르게 지역 전반으로 번지며 일반업종 전망을 크게 끌어내린 것으로 해석됨.
- 여수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25.5.1~'27.4.30)에 이어 고용위기선제 대응지역('25.8.28~'26.2.27)으로도 지정돼 있으며, 이는 이번 불황이 단순한 경기둔화를 넘어 고용과 지역경제 전반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배경임.
- 종합하면, 2026년 1/4분기 전망은 "석유화학(제한적 반등) vs 일반업종(큰 폭 하락)"으로 흐름이 갈리며 종합지수는 50 아래로 내려왔음.
- 석유화학은 재편·감산 논의가 전망치에 일부 반영됐지만, 중국·중동발 증설 물량 유입에 따른 국제 가격 경쟁 심화와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등이 남아 있어 상승 폭은 제한적임. 동시에 일반업종은 산단의 가동·투자·발주 축소가 지역의 매출·고용·소비로 이어지는 흐름을 체감하면서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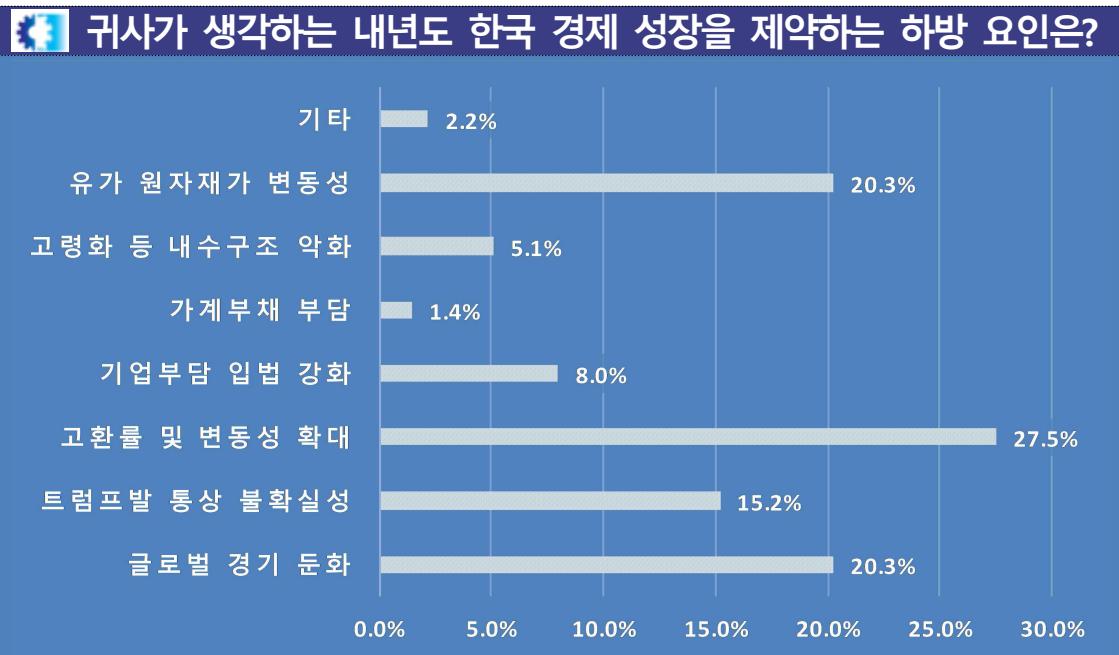
3. 세부 항목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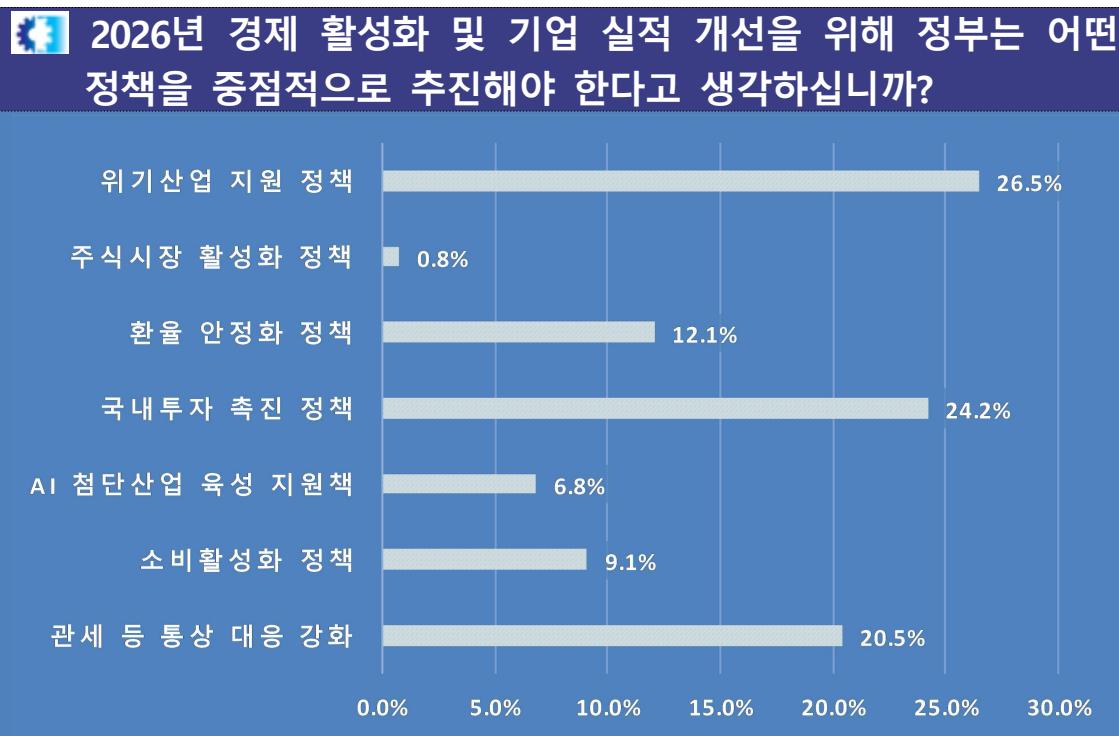
- ▶ 원부자재 가격 변동(51.0%)> 인건비 부담(29.0%)> 환율 요인(7.0%)> 관세 통상비용(6.0%)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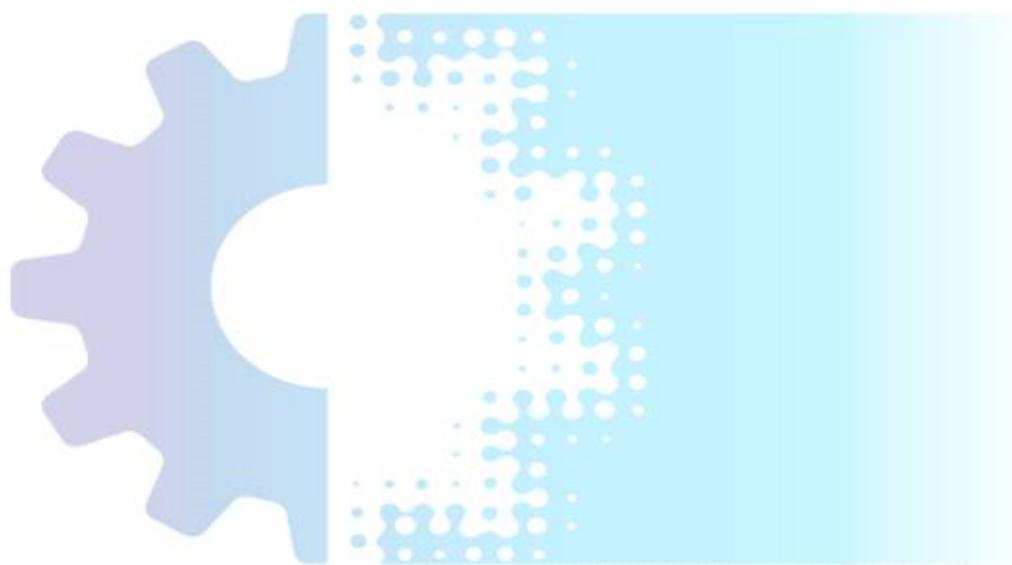
- ▶ 금리인하 및 금융여건 완화(21.9%)> 국내기업 투자확대(19.5%)> 기업 규제완화(18.0%)> 정부 확장재정 기조(14.8%)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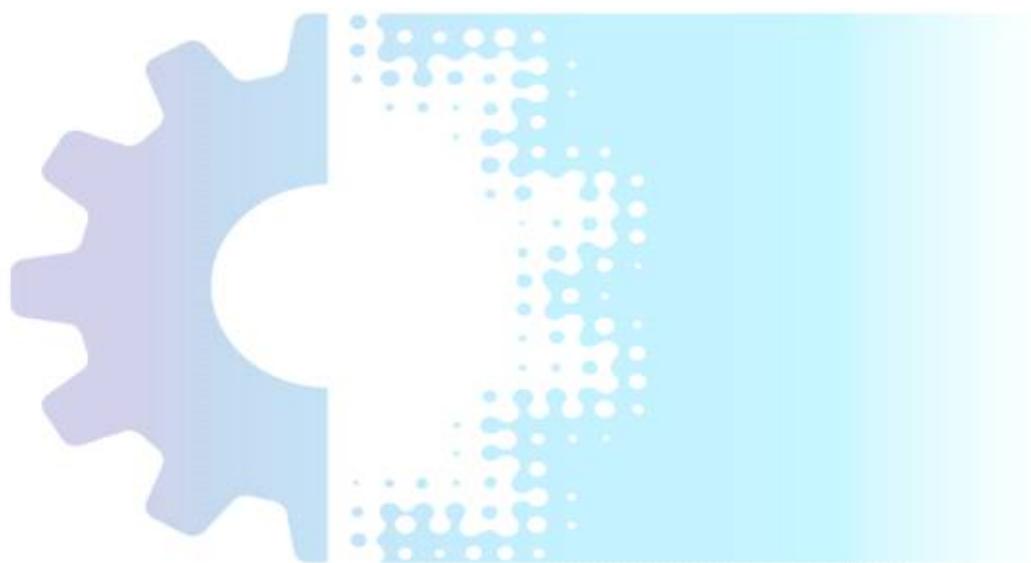


- ▣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27.5%)> 유가 원자재가 변동성(20.3%) = 글로벌 경기 둔화(20.3%)> 트럼프 발 통상 불확실성 순으로 조사됨.



- ▣ 위기산업 지원 정책(26.5%)> 국내투자 촉진정책(24.2%)> 관세 등 통상 대응 강화(20.5%)> 환율 안정화 정책(12.1%) 순으로 조사됨.







여수상공회의소